

기레기라 해도 좋아



매일경제
박동환 기자



“기사를 얻으려면 사람을 만나라”

수습 때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사람을 만나 기사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널려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처음에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정보가 쏟아졌고 그 중에서는 뉴스의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정말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낸 아이디어들은 종종 지적을 받았고 기사로 나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경제 부처를 출입하는 부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선배들의 말을 체감하게 된 것은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취재원을 만나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난 뒤였습니다. 당시 취재원으로부터 이른바 ‘단독’ 기사가 될 정보를 얻어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설명이 아니었다면 사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흘러가던 굵직한 정부 정책 관련 해설 기사를 쓸 때 빠대조차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을 것이 분명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기자직에 대한 회의가 밀려온 시절

“기사를 얻으려면 사람을 만나라”는 선배의 조언을 체감한 이후에는 정책 담당자와 고위급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부지런히 잡았습니다. 운이 좋아 몇 번 다른 매체들도 받는 단독 기사를 쓴 적이 있었지만 그 뿌듯함은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는 휘발성이 큰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기자직을 처음 꿈꾼 이후 원하던 기자가 됐지만 ‘이게 기자가 하는 일의 전부인가’라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기자가 하는 일이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는 정보를 경쟁사보다 조금 더 먼저 찾아내 알리는 정도라면 존재 가치가 가벼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가령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이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 언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친해진 기자에게 읽을거리 정도로 주는 정보라면 이걸 써서 뭐가 남는 것인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뉴스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불문하고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양합니다. 아무리 중립적으로 반론을 반영해도 기사에는 아마(논조)가 있고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기사를 쓰든 욕을 먹거나 화를 내는 피드백이 댓글이든 메일이든 날아왔습니

다. 기사를 잘 썼다는 칭찬은 거의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레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사회적 반향이 큰 기사를 써서 그랬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기사를 쓸 때마다 들려오는 기레기 소리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는 몹쓸 짓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선배는 “기자일은 누군가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이라고 충고했지만 이 또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첫 부서에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지난해 말 사회부 기동취재팀(사건팀)으로 발령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서입니다. 보도자료가 실재 없이 나오고 취재원들도 비교적 친절했던 기존 출입처와는 달리 사건팀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부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 기사를 쓰라’는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회부에서는 기사 첫줄을 쓰려면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레기’라 욕하지만 기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았습니다.

사회부에서 취재한 지 채 1년이 안 됐지만 그동안 받은 제보만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성폭행 피해 제보자, 병원 내 인권침해 피해 제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제보자, 전세 사기 피해 제보자, 층간 소음 피해 제보자, 학원 수강 사기 피해 제보자, 공무원 시험 피해 제보자, 분양 사기 피해 제보자에 이르기까지. 피해 유형도 무척이나 다양했습니다.

제보자들을 만나 그들이 말해주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 순식간에 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과연 뉴스거리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매정하게 이야기를 끊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제보자가 공들여 말해준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을 때는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사과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에요,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라는 것. 그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공무원의 이야기를 기사로 낸 적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지만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고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는 발표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레기라고 욕해도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 기사를 쓰라는 말의 진의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도 과거와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기자가 돼야 할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펼쳐져 있는 길이 너무나 다양해 그 위에서 방향을 헤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 세상에 전할 때 비로소 저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

매일경제신문 박동환 기자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기자